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80114~20180203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Langara College는 밴쿠버 시내에 있는 2년제 대학(college)로 다운타운까지는 도보+지하철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건물은 A, B, C, T, Library, Student Union Building까지 총 6동이 있습니다. Tim Hortons(캐나다 커피 체인점)는 A, Starbucks는 L, Subway는 T 빌딩에 있습니다. 그 외에 카페테리아는 빌딩 A와 Student Union 등에 있습니다. School Nurse는 빌딩 A쪽 카페테리아 지나서 쪽 걸어가면 있는 빌딩 B에 있으나 진료받고자 할 때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나름 잔디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동문과 All-gender 화장실, Safe Place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시설도 있습니다. 저녁에 49번 버스를 타고 학교쪽 지나가면 많은 학생들로 채워진 도서관을 볼 수 있습니다.</p>
수업	<p>겨울 학기에는 분반을 하지 않고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한 반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내용은 비교적 기초적인 일상회화 구문, 단어부터 캐나다 문화, 세계적인 이슈까지 다룹니다. 강사 한 분께서 모든 수업을 다 하시고, 다른 홈스테이 오피스 직원분들은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과 야외 활동 등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과제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과제는 홈스테이 가족 인터뷰(유인물 안에 질문 모두 써져있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과제 외에도 에세이, 신문 기사 요약 같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도 있었습니다.</p>

Activity	<p>Museum of Vancouver나 아쿠아리움, Granville Island와 같은 관광지 탐방과 컬링, 스노우슈잉 등의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 시간은 2시간 이하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관광지 탐방의 경우는 정규 수업 시간인 3시 이후에도 본인이 머물고 싶으면 계속 있어도 됩니다. 컬링은 바지라면 뭘 입어도 상관없고 장갑 정도만 필요하지만 스노우슈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스키 바지가 가장 좋긴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두껍고 편하게 입어야 합니다. 신발이 운동화밖에 없다면 부츠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부츠 외에도 바지, 점퍼도 빌릴 수 있습니다. 활동 전날 정도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겨울의 밴쿠버는 대체로 영상기온으로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대신 비가 엄청 자주 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4일 정도 빠고는 전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파란 하늘 본 날이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날씨만 보면 겨울에 밴쿠버로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p>
안전	<p>미국처럼 총기 위험 같은 건 덜한 편이나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교 측에서 극단적인 예시 영상을 보여줘 많은 학생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아주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변화한 곳일지라도 노숙인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 인근은 다운타운 쪽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분위기라 전해 들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 외부 숙소( ) 기타( )</p> <p>홈스테이 집에서 저는 1층이 아닌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가족과 분리되어있어 제 사생활이 보장된 편이었습니다. 제가 머문 집은 어린 아이들 셋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8시~9시 정도에 자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해서 그 점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방과후에 하키와 모국어 수업 등으로 바쁜 편이라 홈스테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늦게 귀가할 것 같거나 저녁을 집에서 안 먹을 것 같다면 사전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마다 각각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있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생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백인 가족에 대한 환상 같은 것 꿈꾸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 대부분은 아시안 계열로, 캐나다에서 태어났을 수도, 아니면 이민자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자신들의 모국어로 자신들끼리 이야기</p>

	<p>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불편을 느낀다면 일단 홈스테이 가족에게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대부분의 가정이 여러 번 홈스테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해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렵다면 홈스테이 오피스에 문의해봅시다. 그들이 알아서 홈스테이 가정에 전달해줄 것입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o ) 외부식당 ( o ) 기타( )</p> <p>아침은 시리얼, 혹은 통밀빵에 피넛 버터 등을 발라 먹고 나갔습니다. 지각할 거 같으면 그냥 바나나 한 송이 들고 뛰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주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거의 샌드위치로 속재료만 매일 달라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날 저녁식사 메뉴가 그대로 다음날 점심이 되기도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이 이른 편이라 놀러 나갔을 때에는 대체로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세금에 팁까지 다 내면 20달러는 가뿐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식당은 당연히 한국보다 비싼 편이니 한식당보다는 그리스나 터키, 인도 식당 등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 입에 안 맞는다면 웬만한 상점가에 하나 정도는 있는 스시 레스토랑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싼 경우도 있어 저도 많이 찾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캐나다산 홍연어(wild soak eye salmon)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먹는 노르웨이산 연어와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는 Vancouver Dine Out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밴쿠버의 여러 레스토랑들이 2~40달러에 3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그럴 듯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인아웃은 평시에 식사하려면 좀 많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즐기기를 추천드립니다.</p>
교통	<p>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 49번 버스를 타거나 3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나는 49번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는 노선으로 특히 등교 시간에 'Sorry Bus Full' 이라는 사인을 켜 채로 버스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운타운 가는 방법은 학교를 등지고 왼쪽 방향으로 7~8분 정도 걷다보면 건너편에 Langara 49th Avenue Station이 보입니다. 이 역은 Canada Line으로 Vancouver City Centre 역에서 내리면 흔히 downtown이라 부르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관광명소 중 하나인 Gastown에 가시려면 거기서 한 정거장 더 가서 Waterfront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평일 오후 6시 이전에는 가는 지역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노선 내 모든 지역이 1존 요금이고 버스도 1존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교통카드에는 1존 요금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CA\$/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현금으로 환전	\$380	
카드로 쓴 금액	약 70만원	
합계	약 10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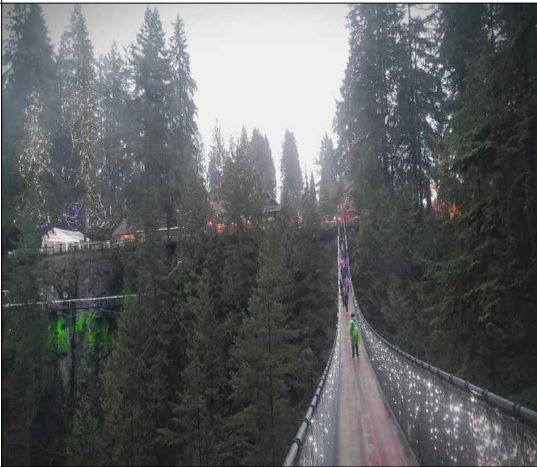
1. 접는 우산을 반드시 챙깁시다. 겨울의 밴쿠버는 비가 정말 자주 옵니다. 나갈 때 하늘이 맑더라도 갑자기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우산은 값이 싼 것으로 준비해 현지에서 잘 쓰다가 마지막 날에 버려 캐리어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2. 한국에서 현지 유심을 미리 사갑시다. 인터넷에서 6~7만원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도 생각보다 많아 구글맵 등의 어플을 쓸 때 데이터를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 외에 충전 케이블이 망가지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미리 다이x에서 하나 정도는 예비로 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2017년 겨울의 후기를 보면 7~800달러의 예산으로 사신 분들도 계셔서 750달러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쇼핑도 '좀' 할 거고, 외식도 '좀' 할 것이라면 1000달러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세금과 팁 등이 별도 계산이라 체감 금액은 상당합니다.
4. 난방이 한국처럼 보일러가 아니라 히터만 있기 때문에 특히 밤에 방이 춥다고 느껴집니다. 잠옷은 한국에서처럼 반팔이 아닌 기모후드와 같은 긴옷으로 챙겨갑시다.
5. 쇼핑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둡시다. 나중에 기념으로 무엇을 사야할까 우왕좌왕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숙소 부문에서도 이미 서술했지만 캐나다에 대한 환상을 버립시다. 특히 밴쿠버는 대도시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간다면 '홍콩+밴쿠버의 합성어로 그만큼 중국인이 많다는 뜻입니다'의 면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의 차이를 즐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동안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확실히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캐나다, 특히 밴쿠버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을 한 곳에

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겨울에 왔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여름의 밴쿠버는 한국보다 선선하고 날씨도 좋아 야외활동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데 반해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하늘만 봐서 밴쿠버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3주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더 긴 시간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을 마치고서 장기 어학연수로 한 번 더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서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 보기를 추천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180114 밴쿠버공항 입국	180119 컬링
	
180122 스탠리 파크	180125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180127 빅토리아



180201 사이프레스 마운틴